

# 시설공사 계약 업무부담 덜어준다

### 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지원단 운영... 추정금액 기준 5500만원 이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단위학교 시설공사 계약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 중심 소규모 시설공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 요

인을 차단하고 집행요류를 예방해 공사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은 건축·조경·전기·기계 등 시설적 퇴직공무원으로 구성,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의 원가계산서 검토, 공사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검토 등 신청에 따라 2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단 도움을 희망하는 학교는 도

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업무담당-학교시설공사지원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원단을 매칭해 주고, 학교와 지원단이 방문일정 등을 협의한 후 현장 지원을 진행한다. 추정금액 기준 5,500만원 이하 사업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시설공사지원단을

활용한 114개교 중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68개교의 만족도가 평균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단 운영으로 도움이 된 분야로는 미비한 부분 보완(39%), 원가계산서 이해(32%), 전문지식 습득(14%) 등을 꼽았다.

김형태 재무과장은 "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또 전문가 지원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로 전북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도내 고교 교사 대상 수업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전주대학교 고교-대학연계지원센터는 최근 도내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교과목 운영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주대 상담심리학과를 포함한 3개 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대전교육정보원 연구사 등 총 11명이 강사로 참여해 개설 과목 다양화를 통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미래지향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실 수업 혁신 지원 등의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67명의 교사가 참여해 교원 역량 및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애초 계획했던 수강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아 분반으로 진행되는 등 참가 대상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았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도내 고등학교-교육청-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학교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선도 모델 구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관계자들 한옥마을 일원서 전통 체험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산하연공유·협업센터는 지난 17~19일 3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이하 UKM) 관계자 및 산하 청소년 방문단 27명과 함께 체험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와 연수 프로그램으로 한복과 한옥 체험, 비빔밥 만들기 체험과 전주대학교 드론 스코츠 체험, 산업디자인학과에서의 캐릭터 3D 프린팅 및 도색 체험, 게임콘텐츠학과 AR/VR 체험, 국어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전통 놀이 체험 등을 운영했다.

한편 UKM의 GENUS에서 인솔한 청소년 방문단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창업 지원 사업의 협업을 위한 것으로, 전주대학교의 시설 견학과 학과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와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글로벌 캠퍼스디자인 수업 및 현장실습 공동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승 단장은 "전주의 전통문화와 전주대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스템 그리고 UKM의 교육 철학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과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이 지난 20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정서적 위기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인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마음건강전문가가 직접 학교 찾아 학생 심리지원

### 도교육청, 전북대병원과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 협약

전북교육청과 전북대병원(이하 전북대)이 도내 청소년들의 심리적 면역력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유희철 병원장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마음건강 증진과 심리·정서적 위기의 조기 발견을 위한 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인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

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보호자, 교사를 위해 마음건강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학생 마음건강문제에 대해 심층 평가하고, 전문가관으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증진을 통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

한 심리적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며 "전문가의 학교방문 관리를 통한 위기학생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면서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가 상담부터 사례 관리, 정서위기 개입, 치료연계 서비스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지난 한 해 BK사업 성과 알린다 | 전북대, 4단계 BK21 성과 포럼

### 21개 교육연구단, 대학원 혁신사업 우수사례 발표 전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근 2022년 4단계 BK21사업 성과 공유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BK사업 성과를 알리고, 교내 21개 BK교육연구단들의 연구 사례(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차연수 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김동원 총장의 환영사, 한림대 강일준 산학부총장의 기조연설, 그리고 BK사업 및 교육연구단(팀)의 우수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BK혁신팀 박석안 전담교수는 대학원 혁신사업 성과발표를 통해 지난해 교육연구를 비롯해 국제화, 학술연구지원 및 환경개선, 교육연구단(팀) 지원 분야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 전문가 양성 성과를 올린 JAINT-IT 인력양성사업단(이지훈 단장)과 국내 외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한 질적 성장을 모색한 21세기형 의과학 창의인재양성교육연구단(김종석 단장) 등이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복지 인력양성사업단(윤병숙 단장)'은 전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운영 등 지역 혁신을 위한 산·학·연 사업의 우수 성과, '수소에너지 융복합기술 혁신인재양성사업단(유동진 단장)'은 에너지융복합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분야 설계링 1% 이내에 드는 연구성과 실적을, 그리고 '동식물 위해보조제어



전북대학교는 최근 2022년 4단계 BK21사업 성과 공유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인재양성연구단(김재수 단장)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교육,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연구개발, 세계 대학 및 연구소와 신뢰하는 파트너십을 목표로 추진한 국제화 사업 등을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전북대 BK21사업 21개 교육연구단(팀)의 연구 성과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차연수 대학원장은 "이 사업을 통한 연구 성과는 우리대학이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창의인재 양성,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리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원광대 등 4개 대학 공유협업 확산 포럼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아주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4개 대학 LINC3.0사업단이 최근 대전 선사리호텔에서 4개 대학 공유협업 확산 포럼을 개최하고, 공유협업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대학 간 교류를 통한 전방위 공유협업 확산 계기 마련과 산학연협력 기반 가치 창출을 위해 대학 간 공유협업 확산을 위한 방안 논의의 주제를 열었다.

한편 4개 대학 LINC3.0사업단은 앞으로도 실무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을 통한 산학연 협력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대학 간 공유협업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저소득 학생에 전하는 따뜻한 밥상

### 도교육청, 설 맞아 '행복 가족 ON' 지원금 지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을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된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연간 총 12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지급된다.

생일이 있는 달에 4만 원, 설과 추석에 각 4만 원씩 1인당 연 3회 총 12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교육급여 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설에는 2022년 교육급여를 받은 학생에게 명절맞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했고, 이달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학생에게는 31일까지 2차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월 생일을 맞은 학생에 대한 생일축하금도 1월 말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학생복지 정책 중 하나"라면서 "계묘년 설을 맞아 토끼처럼 다복한 가정의 정을 느끼고 화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올해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스마트기기 6만4천여대 보급

### 도교육청, 초등 태블릿 · 중고교는 노트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내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와 학급당 1대의 충전보관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스마트기기 6만4,000여 대를 3,100여 대의 충전보관함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초등학교에는 스크래치와 엔트리 등 블록코딩에 적합한 소형 태블릿 형태의 스마트기기가 보급된다.

또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문서작성과 자료 검색, 데이터 활용 텍스트 코딩 등 인공지능(AI) 교육에 적합한 노트북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지역 스마트

기기 보급률은 2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다. 특히 보급률이 100%인 부안과 경남을 비롯해 충북과 경북, 전남 등 11개 시도는 보급률이 50%를 넘는다.

이에 도교육청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도내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57.5%로 높아진다.

한편 스마트기기는 계약과 입찰 과정 등을 거쳐 2학기 수업에 활용된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가 보급돼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에듀테크 기반 교실 환경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인사제도 개선 공금증 해소해드려요'

### 도교육청, 30일 · 내달 1 · 3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나눠 세 차례 운영된다.

먼저 오는 30일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1차 설명회는 전주·익산·완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2월 1일 정읍설명회는 군산·정읍·김제·부안·순창·고창·진안·무주·진안·장수 근무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2월 3일 장수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남원·임실·무주·진안·장수 근무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사제도 개선 TF 운영 경과를 보고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제도 및 승진제도에 대한 TF 개선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질의 응답을 통해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일반직공무원들의 공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수고로움이 있는 곳에 가점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한다"는 서거석 교육감의 인사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직무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0일 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노동관련 법령 이해와 다양한 사례(상담) 중심의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이해(기본개념) △임금 노동시간 △휴직과 장년 △휴일과 휴가 모성보호 등이다. 특히, 이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담당자의 이해



도를 높이는 시간이 가졌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습득과 빠른 이해로 학교 현장과 조직 전반의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업무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